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

행복한 학부모회 '아이디어' 출범... "아이 모두를 위한 희망 첫걸음"

행복한 학부모회 '아이디어'가 11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르면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기치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내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 지역 내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가교 역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준중반은 교육 문화 확산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가입 회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출범 초기부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김운태 우석대 부총

장,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임정엽 전 원주군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조지훈 전 전주 시의회 의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함께했다.

이울러, 인국전 전 전북대 부총장(아이디어 고문),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대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고요한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등도 함께하며 학부모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서둘러 수시전형 설계자로 알려진 김경범 교수와 중앙대유 흥정의 대표가 초청돼 '입시 변화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에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전북의 미래를 본다"며 "행복한 학부모회가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복한 학부모회 '아이디어' 이소은 회장은 "학부모회가 지역의 교육 문제에 귀 기울이며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겠다"며 "오늘의 출범이 우리 아이 모두를 위한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행복한 학부모회 '아이디어'가 11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가운데, 회원들이 창립총회 특강을 듣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5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을 전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조 직문화 실천 결의를 하고 있다.

존중·배려 살아 숨쉬는 조직문화 실천 결의

전북교육청, '2025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 전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2층 강당에서 '2025 상호 존중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배려의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갑질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년 2학기 첫 번째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본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장과 직원 대표가 함께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부서별 갑질 근절 다짐 릴레이', 전 직원이 작성한 '상호 존중 다짐 엽서 게시' 등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았다.

특히 톨캣을 돌려 선정된 부서에는 간식 쿠폰을 증정하는 '화합의 시간'도 마련해 직원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직원 여러분은 업무·직책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즐겁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갑질과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2월까지 '2025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 운영

총 6회 걸쳐 진행... 최태성 별별한국사 연구소장·김승수 전 전주시장 등 명강사 초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학생중심 미래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9월 23일부터 12월까지 6차례 개최되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각 분야의 명강사들이 초청된다.

초청 강사로는 △9월 23일 최태성 별별한국사 연구소장 △10월 1일 김승수 전 전주시장 △10월 21일 박문호 뇌과학자 △11월 6일 이호선 송실사이버대 학교 교수, △11월 25일 이병훈 학생

컨설턴트 △12월 김사민 전 한국문화번역원장 등이다.

강연 주제는 △자녀의 진로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자녀와 소통하는 기술 등 학부모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녀교육 방안에 중점을 뒀다.

참여 신청은 각 강연 1주일 전부터 가능하며, 학부모·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치료제 없는 '프리온 질환' 정복 새 전기 마련

전북대 정병훈 교수팀, 연구재단 국가 연구사업 3건 동시 수주
2월 중견연구 선정 후 출선정... "혁신적 치료제 개발 속도낼 것"

전북대학교 정병훈 교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연구팀이 프리온 질환 정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팀은 박사과정생, 박사후연구원,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연구재단의 국가 연구사업 3건을 동시에 수주하면서 연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연구팀의 최다인 박사과정생은 '프리온 질환에서 Ferroptosis 및 Cuproptosis 기반의 새로운 세포사멸 기전 규명'이라는 연구로 박사과정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에 선정돼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젊은 연구자가 국가적 지원 속에서 차세대 학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인 Zayed 박사는 '다중 오믹스 분석 기반 프리온 질환 치료'를 위한 중간결과보고서



정병훈 교수



Zayed 박사



최다인 박사과정

유래 엑소좀을 통한 Ferostatin-1 전달 연구로 중견연구(창의연구형)과제에 선정됐다. 다중 오믹스 분석과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접목한 이번 연구는 새로운 치료 전달 전략을 제시하며, 프리온 질환 치료의 혁신적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을 이끄는 정병훈 교수는 '난치성 프리온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단독 치료 전략 개발 및 기전 규명' 연구로 개척연구에 최종 선정됐다. 개척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가 집중된 영역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개념 정립을 지원하는 도전형 사업으로, '1인 1과제 원칙'이 적용되는 기초연구사업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과제다. 이번 선정은 치료제가 전무한 프리온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을 이끌 핵심 연구로 평가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월에 '프리온 질환에서 멀티오믹스 기반 바이오마커 기능 규명 및 치료 후보물질 개발' 과제로 중견연구에 선정된 바 있다.

정 교수는 "프리온 질환은 치료제가 전혀 없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이지만, 우리 연구팀은 세포사멸 기전 규명에서부터 줄기세포 및 엑소좀 기반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 연구비 수주는 이러한 연구 방향성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프리온질환은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PrP^{Sc})이 뇌에 축적돼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간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소의 광우병(BSE)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장은성 기자

"학문적 연구·산업 현장과의 연계도 강화"

우석대 박석재 교수, 신입 해양비즈니스학회장 취임

우석대학교 박석재(경영학부) 교수가 (사)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신입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는 최근 성균관대학교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를 제8대 학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1년이다. /장은성 기자



신임 박석재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 속에서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책 대응에 있어 학회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회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는 물론 산업 현장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는 세계 경제의 급속한 통합과 단일시장화에 대응해 해양산업 발전과 UN 해양법에 부응하는 해양정책 및 해양비즈니스 이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뇌졸중 환자 재활 위한 청각 자극 기반 보조기기 연구

전북대 배운진 석사과정생,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배운진 석사과정생(바이오메디컬공학부·지도교수 김경자)이 한국연구재단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배 석사과정생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12개월 간 총 1,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은 이공학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계획을 가진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 과제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 재활을 위한 청각 자극 기반 인터랙티

브 필기 보조 기기 개발'이다. 이는 리듬 청각 자극(RAS)을 재활 프로그램에 융합해 기존 재활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배운진 석사과정생은 "이번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준 김경자 교수님과 정지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연구에 더욱 정진해 향후 재활치료 기기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자 지도교수는 "청각 자극 기반 재활운동을 상지 재활, 특히 필기 보조 기기에 적용한 것은 독창적인 시도"라며 "이번 연구가 뇌졸중 환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재활치료 기기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AI 기반 진로·취업교육 강화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는 AI 기반의 진로·취업 교육 강화로 미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2학기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진로·취업 교육'을 집중 시행해 학생들이 ChatGPT, Gemini 등을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프롬프트 설계 능력을 키우고,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도울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대학생 Gemini Academy' 교육과 연계해 AI 활용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 국가공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시험인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증 과정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속형 학생취업처장은 "AI 기반 첨단 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구 학부모회 직원 사무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11일 이틀간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구 학부모회 직원과 사무실무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구 학부모회 직원과 사무실무사의 실무 역량 및 행정업무 지원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걷기 트레이닝' △성성형 AI '챗GPT'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걷기 트레이닝'은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 및 직장 동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직장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챗GPT 활용법' 강의는 학교 현장 실무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상근 예산과장은 "이번 연수가 구 학부모회직원과 사무실무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챗GPT 트레이닝을 통한 건강 증진과 챗GPT를 활용한 업무 능력 향상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학생교육문화관

13일 가족 뮤지컬 공연

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형대)은 오는 13일 10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고 11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가족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는 독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원작으로,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즐거움을, 부모 세대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소중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책 속 상상의 세계가 무대 위에서 배우의 연기로 펼쳐져 아이들에게 흥미를 갖고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도 책을 매개로 한 공감을 이끌어 내 독서를 이어가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대 관장은 "책을 원작으로 한 공연은 아이들의 책 읽기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